



교과서 어디까지 가 봤니? 답사보고서

선덕여왕



지혜와 총명함을 배워 나의 미래를 설계하자



세대이음

선덕여왕 인터뷰

1. 안녕하십니까? 세대이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경주 첨성대 앞입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한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선덕여왕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3. 여왕님 귀한 시간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왕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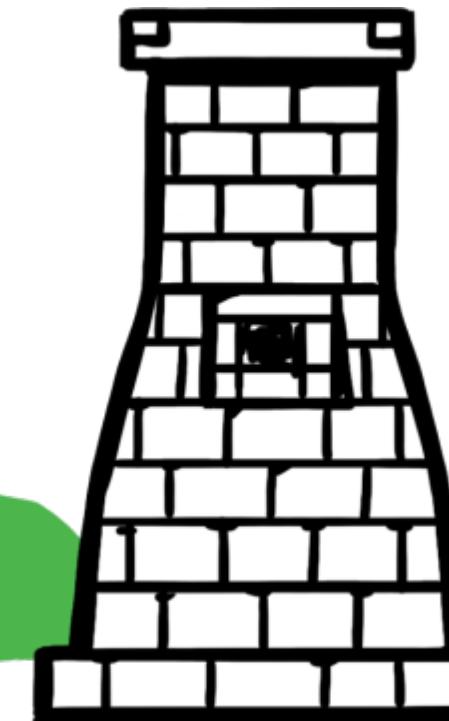
4. 저는 진평왕의 첫째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이름은 김덕만이었어요.

5. 어떻게 여왕이 되셨나요?

6.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성골 신분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성골 남자가 없어서 내가 왕이 되었어요.

7. '골품제'란 무엇인가요?

8. 신라는 왕족, 귀족, 평민, 노비로 신분이 나누었어요. 귀족도 등급이 나누었고, 부모 가 둘 다 왕족이면 성골, 한 명만 왕족이면 진골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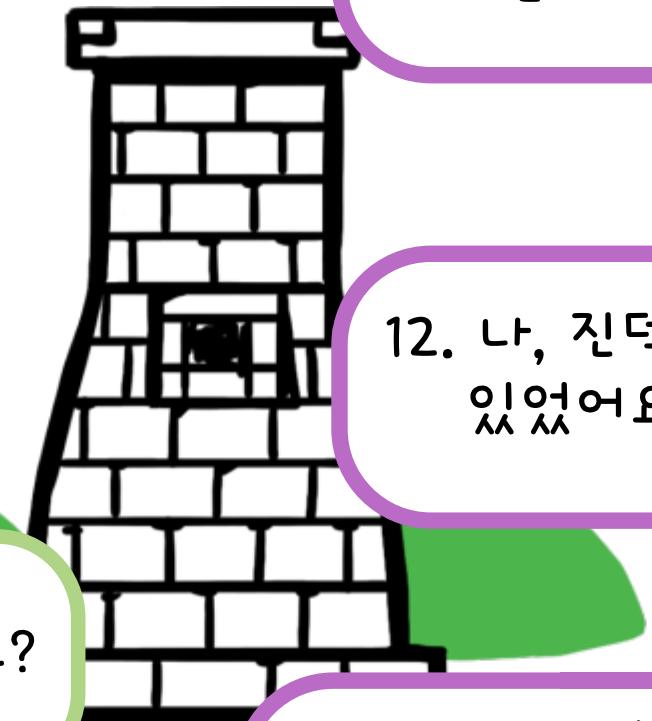


9. 신라 최초의 여왕이신데,
여왕이 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11. 여왕님 말고도 여왕이 또 있으셨나요?

13. 여왕이 되신 다음엔 어떤 일을 하셨나요?

15. 여왕님은 어질게 나라를 다스리며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셨군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어린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여자인 내가 왕이 되자 귀족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었답니다.

12. 나, 진덕여왕, 진성여왕까지 모두 세 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14. 나는 왕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 황룡사에 높은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첨성대를 지어 하늘의 별자리를 살펴
서 백성들의 농사도 도왔답니다.

16.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예견치
못한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답니다. 저도 어려움
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루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다보니 제가
지나 온 길이 동굴이 아닌 길이 통하는 긴 터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말고 성실
히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선덕여왕 집중탐구”

선덕여왕(재위 632~647년)

신라의 제 27대 국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다.

신라에서는 성골 출신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큰 딸인 덕만이가 왕이 되었다.

여왕의 즉위를 탐탁치않게 여긴 귀족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선덕여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수많은 위기를 잘 이겨내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선덕여왕 후반기에는 백제의 잣은 침입으로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김춘추를 중심으로 꾸준한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김유신을 중심으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해 나갔다고 한다.

선덕여왕은 삼국의 정립과 당나라와 같은 강대국의 등장 속에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주국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킨 통치자로 평가 받고 있다.





활동 일정

첫째날

불국사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선덕대왕릉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역사문화관

교촌마을(숙소)

둘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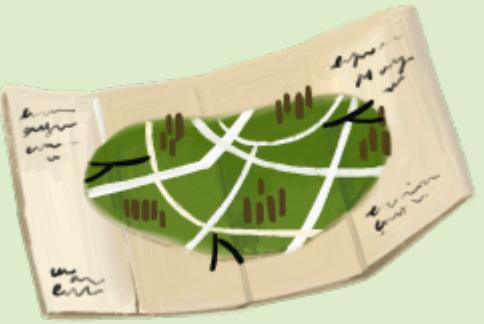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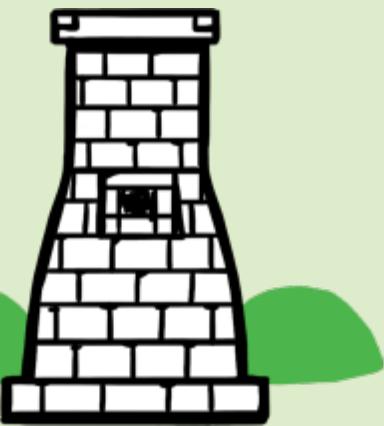
동궁과 월지

대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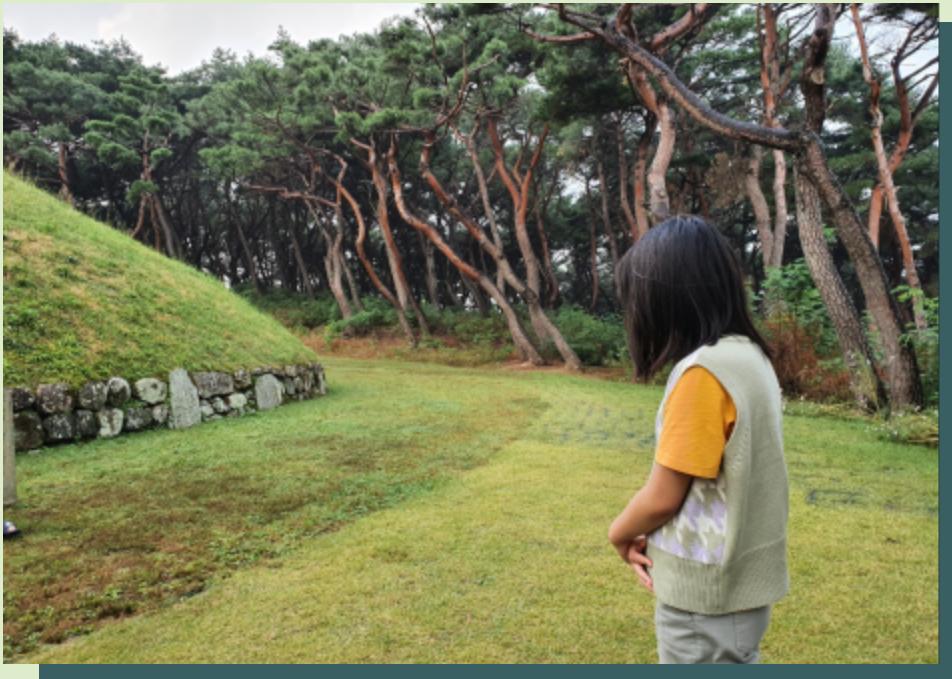
천마총

국립경주박물관

선덕여왕 공원



“선덕여왕 지혜의 발자취를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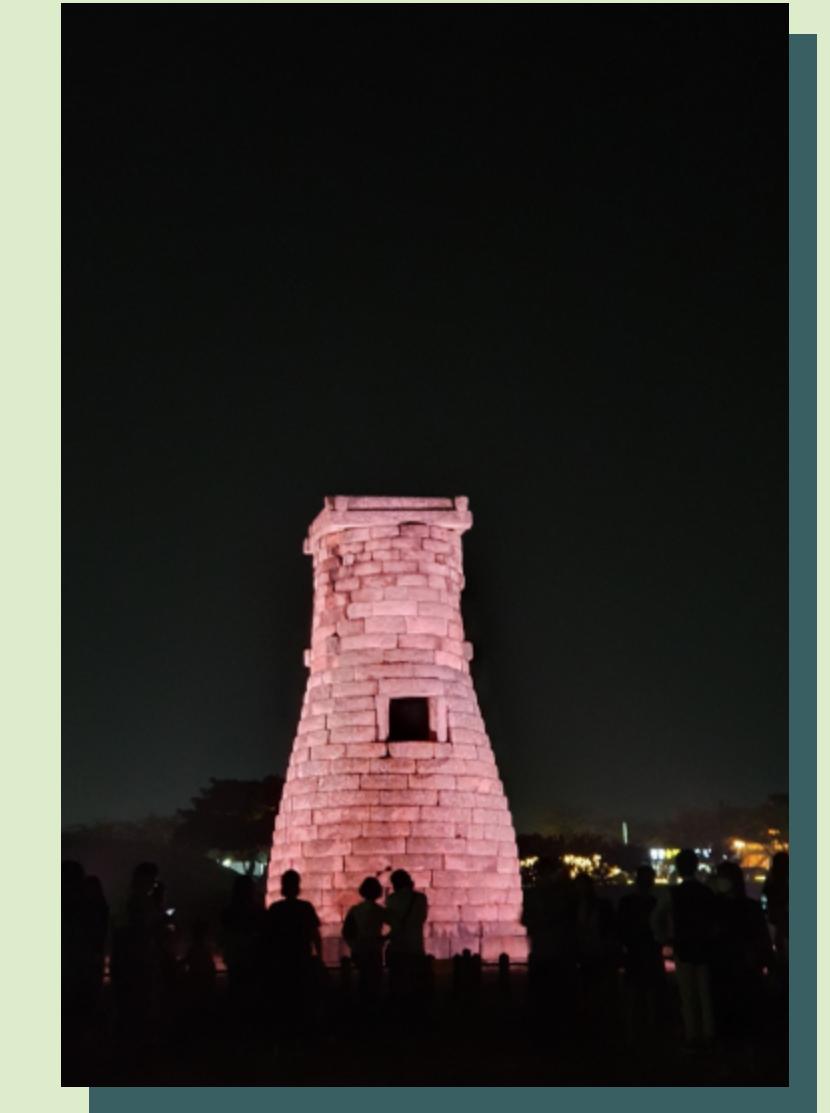
선덕여왕릉

삼국유사에 따르면 "내가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느 곳 인지 알지 못해서 물으니 왕이 "낭산 남 쪽"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 날에 이르니 왕이 진짜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 신하들이 낭산 양지에서 선덕여왕의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분황사, 황룡사역사문화관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되었으며, 자장율사와 원효대사가 주석하였다. 분황사 경내에는 신라 석탑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모전석탑이 남아 있다. 황룡사는 선덕여왕 12년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바람을 담아 9층 목탑을 지었는데,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다고 한다.



첨성대

별과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를 언제 지으면 좋을지 백성들이 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선덕여왕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선덕여왕을 통해 배운 점”

배운점

반란과 전쟁 등의 혼란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낸 선덕여왕의 리더쉽과 예지력을 역사적인 장소와 문헌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시기와 질투를 당당히 이겨낸 선덕여왕의 모습은 배울 점이 아주 많았다.

작용점

선덕여왕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면서 나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누군가의 평가에 가두어 두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나랏일을 했던 선덕여왕처럼 나도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야겠다.

의미획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선덕여왕의 지혜와 총명함을 배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리더자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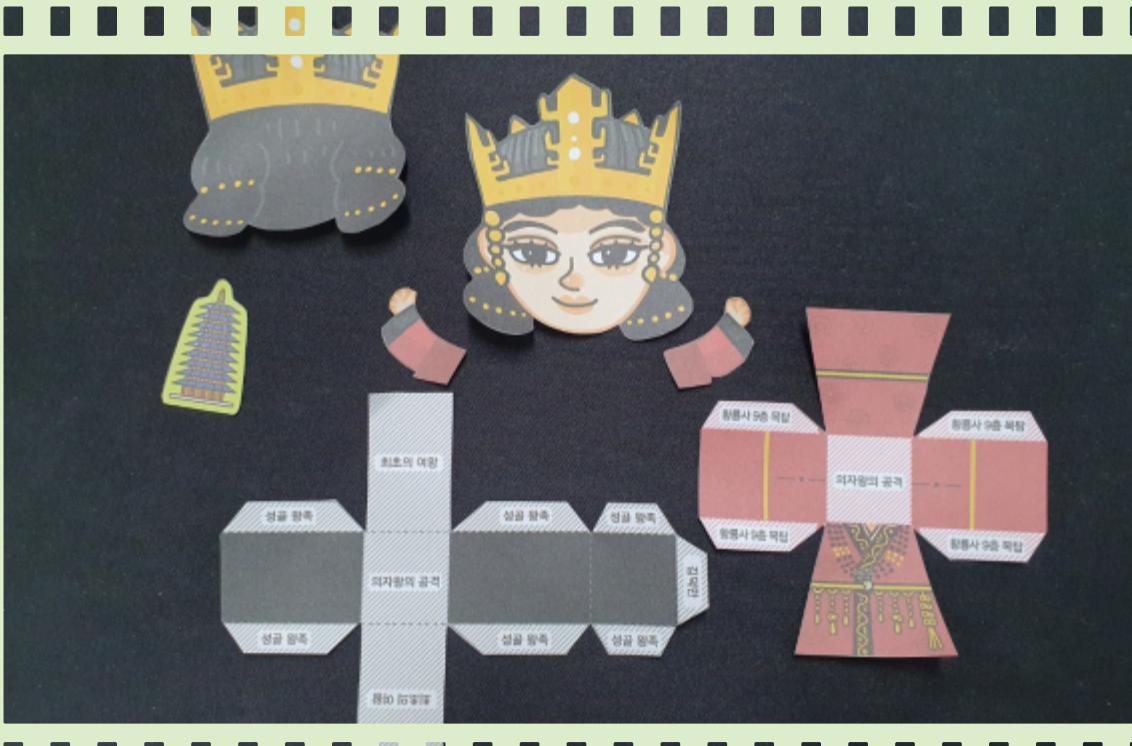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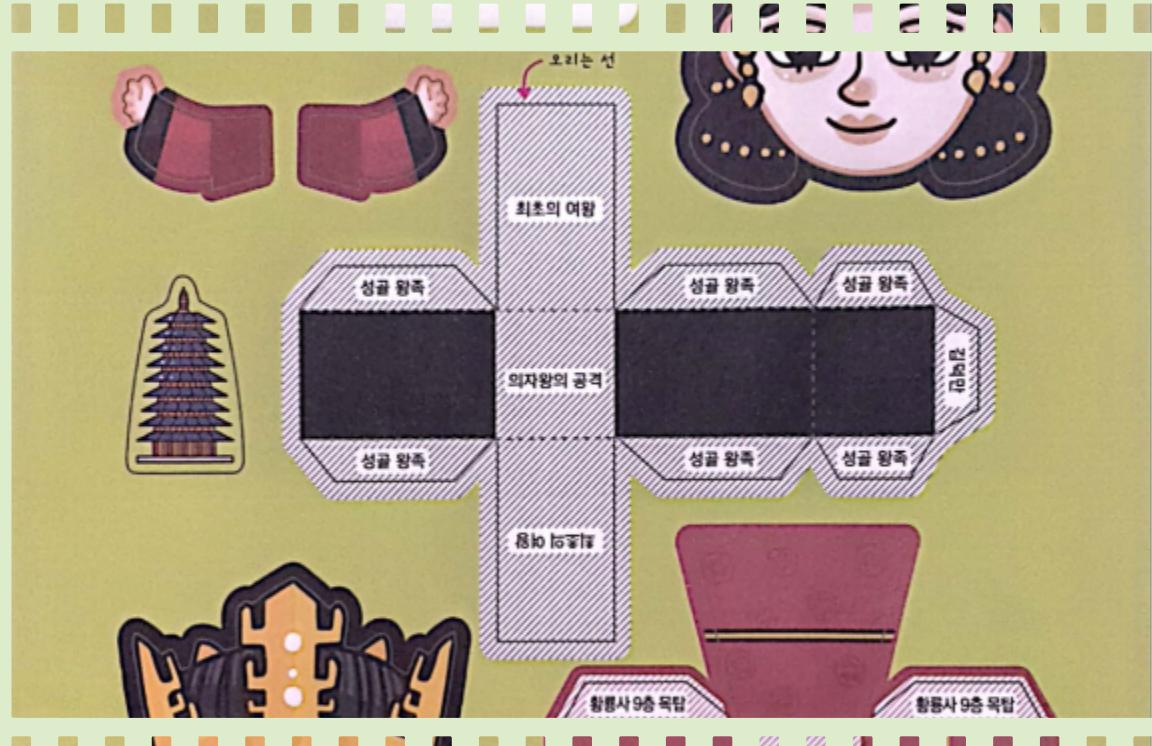
상장

선덕여왕님은 지혜와 총명함으로 수많은 위기를
잘 이겨내고 신라를 크게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
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2일

덕송초등학교 0100

“선덕여왕 입체인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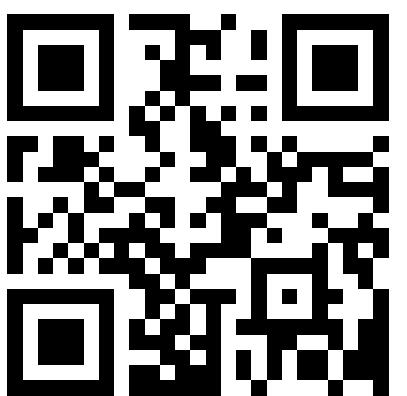


도안다운

<http://asq.kr/zISIY0>

영상

<http://asq.kr/xY45b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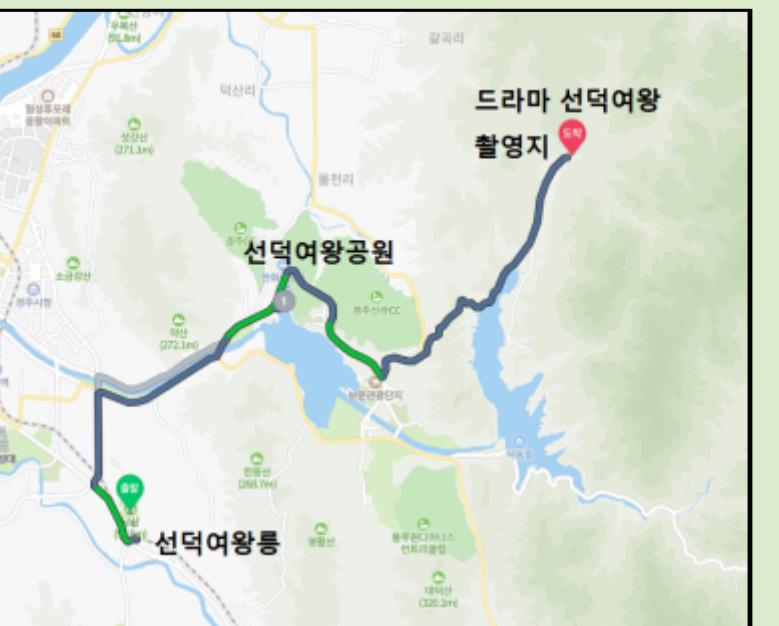


출처: 이지스 에듀 <체험! 가위 잡고 한국사>

교과서 속 어디까지 가 봤니? 이렇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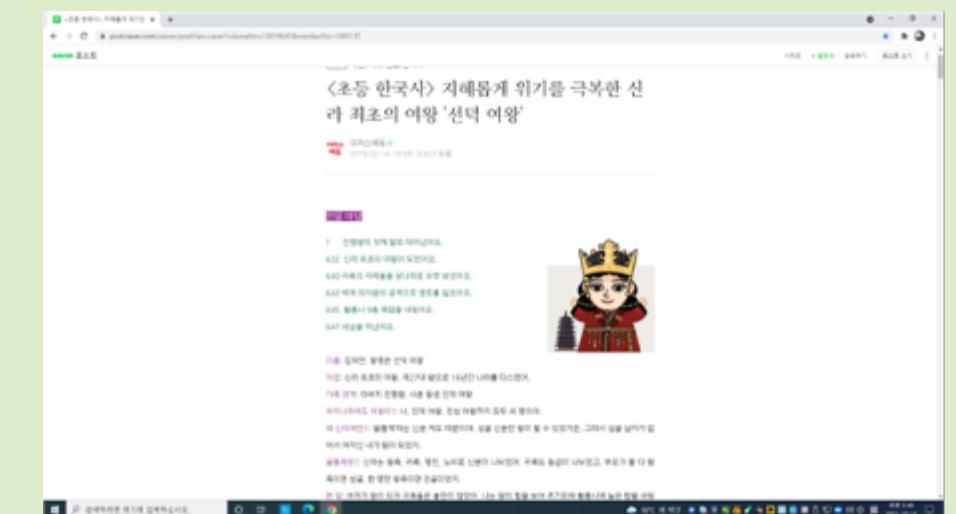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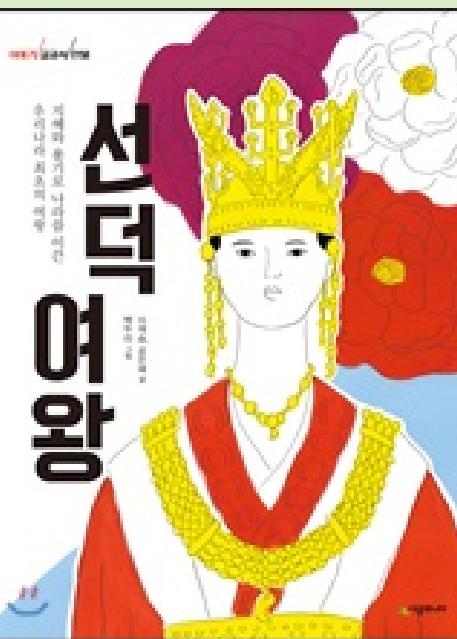
1

경주 담사 계획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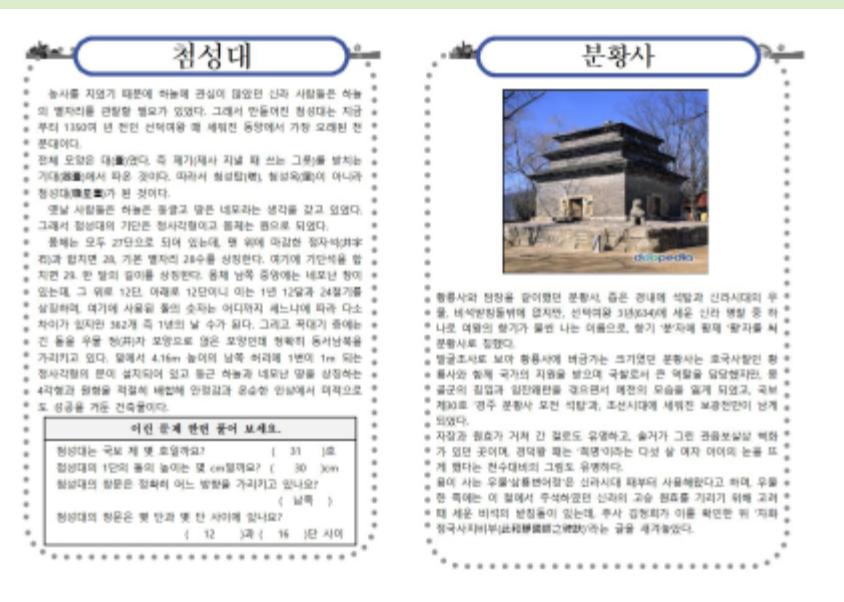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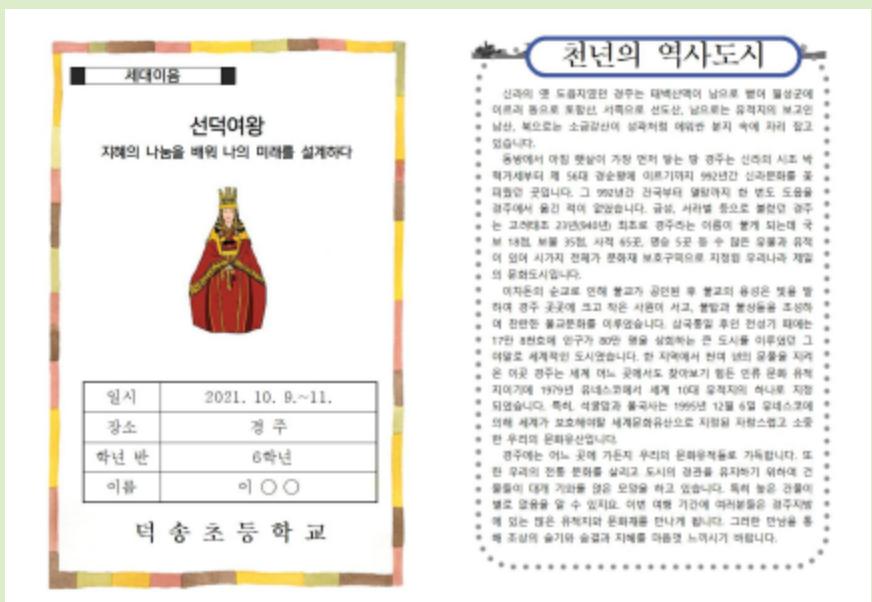
2

관련서적, 인터넷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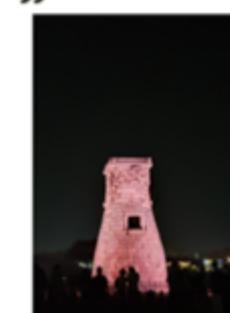
3

경주 학습지 제작



4

경주답사 보고서 작성



서판이와류

삼국유사에 따르면 “내가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해서 물으니 왕이 “낭산 남쪽”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 날에 이르니 왕이 진짜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 신하들이 낭산 양지에서 선덕여왕의 장사를 지내다고 한다.

황사, 황룡사역사문화관
황사는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되었으며, 자
율사와 원효대사가 주석하였다. 분황사 경
에는 신라 석탑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모전석
이 남아 있다. 황룡사는 선덕여왕 12년에
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바람을 담아 9층 목
을 지었는데,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구운 그 훼망과 100년을 헌다.

첨성대
별과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를 언제
지으면 좋을지 백성들이 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선덕여
왕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